



보도 일시	2022. 11. 17.(목) 11:00 < 11.18.(금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11. 17.(목)
담당 부서	표준정책국	책임자	과장 최정식 (043-870-5390)
	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	담당자	연구사 채송화 (043-870-5391)

## 건물에너지 효율 위한 건물일체형 태양광(BIPV) KS 개정

### - 국표원, KS C 8577 「BIPV - 성능평가 요구사항」 개정 고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상훈)은 건물일체형 태양광(BIPV)의 다양한 제품 특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한 KS 표준\*을 11월 17일 개정 고시하였다.

\* KS C 8577, 「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(BIPV) - 성능평가 요구사항」

- 이는 지난달 발표된 「건물일체형 태양광(BIPV)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」에 따른 후속으로, 전력생산과 건축자재 기능을 모두 갖춘 BIPV가 활성화되면 건물에너지 절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BIPV는 별도 부지나 외부 구조물 없이 기존 건축 디자인에 융화되어 수용성 확보가 용이하고, 수평·수직면에 두루 적용 가능해 국토가 좁고 고층건물이 많은 우리나라 보급환경에 적합하다.

□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 및 소재가 융합된 제품이 개발되면서 기존 KS의 적용 범위 확대 요구가 증가해 이번 개정을 통해 BIPV 설치 위치와 적용 소재를 추가했다.

- 국표원은 2016년부터 일반 태양광 모듈에 준한 전기성능 요구사항과 전자재 성능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항목으로 구성된 KS를 운용해왔으나, 창호, 커튼월, 지붕에 국한된 설치 위치 및 유리에 기반한 모듈 소재 제한으로 인해 다양한 제품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산업계 및 시험기관 등 전문가 검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산업표준을 개정하였다.

- 이번에 개정된 KS는 적용 범위에 외벽 등을 추가하여 루버, 블라인드, 기와 등 건축 부자재 전반으로 BIPV 설치 위치가 확대되었으며, 유리가 포함되지 않는 모듈 형태도 추가하여 테플론, 고분자 PP계열 등 다양한 소재로 개발된 제품도 설치 가능해졌다.



- 한편, 국표원은 이날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「태양광발전 표준화 전략협의회」를 개최하여 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표준·인증 고도화 전략 및 향후 방향을 모색하였다.

- 본 협의회에 참석한 BIPV 모듈 제조업체 관계자는 KS 적용 범위를 확대한 이번 개정이 실제 출시되고 있는 다양한 제품의 보급 기반 마련 및 초기시장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.
- 또한 BIPV 국제표준\* 부합화 도입, 강화된 내화성능 시험항목 반영 등 향후 표준 및 인증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전략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.

\* IEC 63092-1, 63092-2,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(제1부) 및 시스템(제2부) 요구사항 등

< 태양광발전 표준화 전략협의회 개요 >

- 일시/장소 : '22.11.17(목), 13:00 / 서울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 사파이어홀
- 참석 : 국표원, 한국에너지공단, 태양광 모듈업체 및 BIPV 관련 시험기관 등
- 주요내용 : ①태양광 표준화 로드맵 수립전략, ②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표준·인증 개편방안 논의

-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“건물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의 보급 기반을 확충코자 KS 표준을 개정하였다” 고 밝히고,

- “향후 태양광 기술혁신에 따라 신규 개발되는 다양한 BIPV 제품 특성을 적시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” 고 덧붙였다.